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 ○○○호(○○동)에 위치한 ○○○○치킨(○○○○시장점, 이하 ‘이 사건 영업장’ 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유통기한이 20○○. ○○. ○○. ○○:○○까지인데 이를 경과한 제품(제품명 ‘○○연유’ 로, 이하 ‘이 사건 연유’ 라 한다)을 보관하는 등의 여러 사항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 ○○.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 ○○. ○○.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외 관련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연유 1개)은 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고, 20○○. ○월경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한 가족 손님이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딸기와 연유를 가져와서 놓고 간 제품으로 찾아갈 줄 알고 보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령상 해당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연유는 주방 조리대 앞 소스류와 함께 별도의 표시 없이 보관되었다. 고객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과실행위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며 안전한 식품 제공 및 취급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20○○. ○○. ○○.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로 ○○, ○○○호(○○동)에 위치한 ○○○○치킨(○  
○○○시장점,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20○○. ○○. ○○. 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였  
으나,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청구  
인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 ○○. ○○. ○○:○○까지인데 이 사건 음식  
점의 조리장 조리대 위에 별도의 표시 없이 다른 양념류와 함께 있던 이 사건  
연유를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상태로 보관하는 등의 여러 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 ○○. ○○.경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  
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 ○○. ○○. 피청  
구인에게 이를 과징금 납부로 갈음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이 식  
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은 20○  
○. ○○. ○○. 이 치킨 브랜드의 공식 메뉴에서는 연유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메뉴에 황도 파인에플과 파인 샤베트를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와 그 중

업원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  
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  
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청  
장은 영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82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카목에서는 식품접객업자  
의 준수사항으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  
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  
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  
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  
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II. 제3호 식품  
접객업에서는 해당 표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소비기한이 경  
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와 그 중  
업원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  
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  
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재료인 이 사건 연유 1개를 영업장 조리장 조리대 위에 보관하여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〇〇. 〇월경 이 사건 영업장에 방문한 고객이 이 사건 연유 1개를 가져왔다가 두고 간 것이고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〇〇〇〇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은 20〇〇. 〇〇. 〇〇. 이 치킨 브랜드의 공식 메뉴에서는 연유가 식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확인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메뉴에 황도 파인애플과 파인 샤베트를 기재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위 메뉴들은 주된 메뉴가 아니고 이러한 메뉴에 연유가 원재료로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연유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이 분명히 증명되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이 사건 연유의 보관 경위, 주된 메뉴에서의 사용 여부, 적발량, 적발횟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고 보인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